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오심!

야구판 망친다

KIA와 삼성의 주말 3연전 첫째 날인 지난 28일 9회말 2사 1루 삼성 진갑용 타석때 1루주자 정형식이 2루 도루를 시도했다. 유격수 김선빈이 재빠르게 태그했지만 이기중 2루심이 세이프를 선언하자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다. <스포츠조선 제공>



명백한 아웃에 “세이프”, 항의하면 판정 반복... KIA, 삼성전 연이틀 오심 논란에 연패 늘

‘사자 사냥’에 나선 KIA 타이거즈가 2루 약봉에 올랐다.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은 KIA의 자존심 회복의 장이자 선두권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승 5패. 우승후보로 꼽히던 팀의 맞대결과 어울리지 않는 전적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만큼 주말 경기에 대한 각오가 남달랐다. 또 타선의 침묵을 견 연승행진으로 차곡차곡 승리를 쌓으

면서 2.5게임차로 1위 삼성을 추격, 주말 3연전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2루발 오심과 부상으로 KIA가 가슴을 찔렀다. 삼성전에 맞춰 칼을 갈아놓은 마운드 전략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상처만 남은 3연전이 되고 말았다. 지난 28일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남겨놓고 나온 결정적인 오심이 악몽의 시작이었다. 나지완의 역전 홈런으로 5-3으로 앞서나 가던 9회말, 마무리 앤서니의 출발부터 심상치 않았다. 박석민에게 2루타를 허용한 뒤 1

사 3루에서 박한이의 적시타를 맞으면서 1점차가 됐다. 대타 진갑용을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세우며 남은 아웃카운트는 하나. 2사 1루에서 대주자 정형식이 2루 도루를 시도했다. 정형식보다 포수 김상훈이 던진 공이 먼저 베이스로 향했지만 이기중 2루심은 세이프를 선언했다. 넉넉한 아웃 타이밍이었지만 태그가 되지 않았다는 판정이었다. 재빠르게 태그를 시도했던 유격수 김선빈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마지막 아웃카운트는 세이프로 변신했다.

결과는 삼성 정병근의 끝내기 안타로 이어졌다. 승리를 억울하게 날린 KIA 선수단은 속상한 마음에 경기가 끝나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2루의 약봉은 29일에도 계속 됐다. 2-2로 맞선 7회 2사 1루 김주찬의 타석, 중견수 앞쪽에 푹 떨어지는 타구를 배영섭이 전력 질주를 해 쫓았지만 2루심이 아닌 박종철 1루심이 원바운드 타구라며 안타를 선언했다. 그 사이 1루에 있던 신종일이 홈을 밟으면서 3-2가 됐다.

그러나 삼성 벤치의 항의와 함께 4심 합의 끝에 노바운드 캐치로 판정이 반복됐다. 결국 홈런은 없던 일이 됐고 2-2에서 이닝이 마무리 됐다. 이번에는 KIA 벤치가 움직였다. 전날 결정적인 판정으로 패배가 됐던 선동열 감독은 또 다시 불리한 판정이 나오자 거세게 항의하며 선수단을 그라운드에서 철수시켰다. 물수레라는 초상구까지 염두에 둔 항의였지만 어필 수 없이 선수들은 다시 그라운드

로 화면으로 노바운드 처리가 맞았다. 반복된 판정이 옳은 판정이기는 했지만 이를 연속 심판들의 큰 실수에 살얼음 승부의 ‘분위기 추’는 삼성에 기울고 말았다. 설상가상 에이스 양현종과 톱타자 이용규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28일 경기 도중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물러났던 양현종은 근육 손상으로 2~3주 가량 결장이 불가피하다. 도루 도중 왼쪽 무릎을 다친 이용규도 30일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각각 서재응과 이준호가 1군에 등극했다. 속 타치는 마무리 앤서니와 삼성전 필승 카드로 준비했던 송은범도 모두 패전 투수가 되는 등 KIA 팬들에게는 악몽의 주말이 되고 말았다. <김영욱기자 wool@kwangju.co.kr>

리틀 태극전사 ‘4강신화’ 재현 할까

U-20 월드컵 B조 3위로 16강... 4일 새벽 3시 콜롬비아와 격돌

한국이 2013 국제 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16강전에서 콜롬비아와 격돌한다. 한국은 지난 30일(한국시간)까지 터기에 이어진 대회 조별리그 결과 C조 1위에 오른 콜롬비아와 4일 오전 3시 트라브존에서 대회 16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조별리그 B조에서 1승1무1패를 기록, 승점 4로 조 3위에 그쳤으나, 각 조 3위인 6개국 4개국에 주어지는 16강 진출권을 따냈다. 한국의 16강 상대인 콜롬비아는 조별리그에서 2승1무의 신바람을 내며 C조 1위에 올랐다. 한국이 콜롬비아를 꺾고 8강에 진출하면 이라크-파라과이의 승자와 8일 8강전을 치른다. 콜롬비아는 이 대회에만 통산 8번째 출전하는 ‘터줏대감’이다. 이번 대회 지역예선인 남미축구연맹(CONMEBOL) U-20 선수권대회에서는 통산 3번째 정상을 밟으며 청소년 축구에서 남미의 맹주로서 입지를 굳건히 했다. 특히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는 주장 후안

킨테로(이탈리아 페스카라), 스트라이커 존 코르도바(멕시코 하구아레스)가 팀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어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키테로는 CONMEBOL U-20 선수권대회에서 5골을 터뜨려 팀 내 최다 득점으로 콜롬비아의 우승을 이끌며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팀의 에이스다. 키가 167cm에 불과하지만, 위협적인 왼발을 앞세워 유럽 리그에서도 탑내는 기대주로 성장했다. 콜롬비아 성인 국가대표팀에도 부름을 받아 지난해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 명단에 포함되고 카메룬과의 친선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콜롬비아판 디디에 드로그바’로 불리는 코르도바는 지역예선에서 4골을 터뜨려 키테로의 뒤를 이었다. CONMEBOL U-20 선수권대회에서 0-1로 패한 한 경기를 제외하면 어김없이 돌 중 한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다. 코르도바는 몸이 유연해 볼을 잡았을 때 움직임이 좋은 것으로 평가돼 ‘태극전사’들이 수비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컨페더컵, 브라질-스페인 오늘 ‘꿈의 대결’

세계 축구팬이 기다려온 꿈의 대결이 월드컵 개최를 1년 앞두고 성사됐다. 브라질과 스페인은 1일 오전 7시(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2013년 국제 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결승전을 치른다.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5차례나 챔피언에 등극해 최다 우승국의 타이틀을 지닌 ‘영원한 우승후보’다. 월드컵 전초전인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는 1997년, 2005년, 2009년에

이여 4연패에 도전한다. 스페인은 2008년과 2012년 유럽선수권대회,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등 메이저 대회를 3연패한 세계 최강국이다. 브라질 플레이는 개인기와 힘, 유연성 등 선수들의 개별 역량과 부분적인 호흡을 바탕으로 진통춤 삼바처럼 현란해 ‘삼바축구’로 불린다. 스페인 축구는 짧고 정교한 패스 플레이가 탁구공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는 뜻에서 ‘타키타카’로 불리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야수 실책에 7승 또 실패

필라델피아전 70닝 2실점

추신수는 시즌 12호 홈런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류현진(26)이 구원 난조와 야수진의 실책이 겹친 탓에 다섯 번째 도전에서도 7승 수확에 또 실패했다. 그러나 팀은 3-3이던 9회말 1사 1, 2루에서 타진 A.J 엘리스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4-3으로 승리했다. 37승 43패를 거둔 내셔널리그 서무지구 최하위 다저스와 선두 에리조나(42승 38패)의 승차는 4.5경기로 좁혀졌다. 류현진은 3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7이닝동안 안타 7개를 맞고 볼넷 3개를 내줬으나 삼진 6개를 결들이며 2점으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았다. 3-2로 앞선 7회말 타석에서 제리 헤어스턴으로 교체된 류현진은 승리 요건을 안고 강판됐다. 9회 마무리 켈리 안선의 난조와 외야수 야시엘 푸이그, 맷 캠프의 연속 실책으로 팀이 3-3 동점을 허용하면서 승리를 허공에 날렸다. 류현진은 뉴욕 양키스 일본인 타자 스즈키 이치로에게 홈런을 허용한 이래 열흘 만에

어틀리에게 1회와 3회 시즌 8, 9번째 피홈런을 기록했다. 류현진이 한 경기에서 홈런 2방을 맞기는 4월 21일 볼티모어와의 경기 이후 두 번째다. 류현진은 5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6승째를 비키고 첫 완봉승으로 장식한 이후 6월 5경기에서 승리 없이 1패만을 안았다. 평균자책점을 2.85에서 2.83으로 떨어뜨린 류현진은 시즌 16번째 등판에서 13번이나 ‘캘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를 펼친 것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는 같은날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레인저스 볼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방문경기에서 시즌 12번째 홈런을 터뜨렸다. 이날 추신수는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1회초 첫 타석에서 텍사스 우완 선발 투수 님 테페쉬의 초구인 시속 146km짜리 싱커를 때려 가운데 펜스를 넘기는 선두타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추신수가 홈런을 때려낸 것은 지난 24일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이래 6일 만이다. 통산 95번째 홈런을 친 추신수는 5개만 더 추가하면 통산 100홈런의 고지를 밟게 된다. <연합뉴스>